

# 602년 阿莫城 戰鬪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許重權\*\* · 丁德氣\*\*\* 共著

1. 서 론
2. 아막성과 주변지역의 군사적 가치
3. 단계별 전개과정과 아막성 전투의 영향
4. 결 론

## 1. 서 론

6세기는 삼국시대 신라의 최전성기로 파악하지만, 동시에 신라의 위기로 설명하기도 한다.<sup>1)</sup> 羅濟同盟의 결렬로 신라는 고구려·백제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sup>2)</sup> 여기에 최근 제기되는 '고구려·백제·왜 連和說'을 고려하면, 신라는 북·서·동쪽에서 군사적 압박을 받았

\* 본 논문은 2011년도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연구소의 국고연구비 지원을 받은 국고연구과제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육군 대령,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 (예)육군 중위, (前)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

1) 李基東, 「新羅의 國制改革과 骨品制的 權力構造의 諸問題」, 『東國史學』34, 2000, 3쪽; 朱甫墩, 「7世紀 羅唐關係의 始末」, 『嶺南學』20, 2011, 133~134쪽.

2) 許重權, 『新羅 統一戰爭史의 軍事史의 研究』,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5, 67~68쪽.

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sup>3)</sup>

특히 백제는 성왕의 복수·失地回復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목표로 신라를 계속 공격하였다. 554~659년까지 신라와 백제의 전쟁은 26회나 나타나지만, 신라의 선제공격은 3회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점에서 554년 이후 신라와 백제의 전쟁에서 대체로 신라는 방어자, 백제는 공격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그러나 신라는 백제의 공격을 대체로 잘 방어하였고, 660년 羅唐聯合을 통해 백제를 멸망시켰다. 나당연합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신라가 전 방위적인 군사적 압박과 지속적인 백제의 과상공세를 극복했다는 점은 신라의 대백제전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고, 전술적 차원에서의 승리는 신라가 차지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 점에서 602년의 아막성 전투는 7세기 초 신라와 백제의 대립에 관한 상과 삼국시대 大兵전투의 양상을 풀어내는데 중요한 소재로 보인다. 관산성 전투~아막성 전투 사이의 2차례 전투가<sup>5)</sup> 소규모·산발적인 것과 달리,

3) 徐榮教,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那 전투」, 『軍史』81, 2011a: 「薛氏女傳, 嘉實 '防秋'의 時空間」, 『韓國古代史探究』8, 2011b: 「阿莫城 전투와 百濟의 倭使國書奪取 사건」, 제86회 동국사학회 학술발표회 요지, 2012a: 「阿莫城 戰鬪와 倭」, 제118회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 요지, 2012b.

당시 신라가 국제적으로 군사적 고립을 당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견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설의 주 사료 중 하나가 『日本書紀』推古紀 9~11년에 보이는 '일본의 신라 정벌계획'인데, 아래와 같이 사료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선행연구가 많이 제출되어 있다. 鄭孝雲, 『『日本書紀』批判序說Ⅲ』, 『釜山史學』29輯, 1995, 13~14쪽; 「『日本書紀』批判序說Ⅱ」, 『韓國古代史研究』9, 1996a, 286~294쪽; 「『日本書紀』와 『推古紀』」, 『日本學』15, 1996b, 130~138쪽; 「7世紀 中葉의 百濟와 倭」, 『百濟研究』27, 1997, 219~220쪽; 李在碩, 「推古紀『新羅幣物』의 一解釋」, 『日本歷史研究』11輯, 2000, 8쪽; 延敏洙, 「7世紀 東아시아 政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24, 2004, 7쪽; 近藤浩一, 「新羅 眞平王代 後期の 對倭外交」, 『일본학연구』22, 2007, 469쪽; 서영일, 「『아막성 전투와 倭』 토론문」, 제 118회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 토론문, 2012. 이 점에서 '일본의 신라정벌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주저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자 한다.

4) 許重權, 앞의 글, 1995, 69~73쪽.

5) 554~602년 사이에 양국의 교전은 561년(『三國史記』27, 百濟本紀5, 威德王 8년(561), 秋七月. 및 『三國史記』4, 新羅本紀4, 眞興王 23년(562), 秋七月.)·577년(『三國史記』4, 新羅本紀4, 眞智王 2년(577), 冬十月. 및 『三國史記』27, 百濟本紀5, 威德王 24년(577), 冬十月.)에 있었다.

아막성 전투는 관산성 전투의 후유증을<sup>6)</sup> 일정하게 극복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또 이 전투는 대규모 전투였고,<sup>7)</sup> '대야성 진출'이라는 목적의 사전작업으로 수행되었다.<sup>8)</sup> 아울러 무왕 대 빈번한 신라 공격의 신호탄이면서, 백제·신라의 주요 전선이 변화하는 계기이기도 하다.<sup>9)</sup> 이 점에서 아막성 전투의 분석은 7세기 초 양국의 각축에 대한 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막성 전투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주로 '무왕의 왕권' 혹은 무왕 대의 정국운영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대군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무왕 즉위시점의 왕권을 설명하거나,<sup>10)</sup> 전투의 결과를 무왕의 왕권강화 계기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sup>11)</sup> 혹은 아막성 전투의 주도세력을 통해 무왕 대의 정치세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sup>12)</sup> 한편 무왕의 대야성 진출 의도 속에서 전투의 목적·경과를 설명하거나<sup>13)</sup> 백제의 전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막성 전투를

6) 『삼국사기』에 의하면, 관산성 전투의 공격자인 백제는 성왕이 피살되고, 좌평 4명·士卒 29,600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말 한필도 돌아가지 못한 대패를 당했다. 『三國史記』4, 新羅本紀4, 眞興王 15년(554), 秋七月. 한편 방어자인 신라는 이 전투에 '悉發國中兵'으로 표현된 전 병력을 동원하였다. 『日本書紀』19, 欽明紀 十五年.(554) 종래 '悉發國中兵'의 주체를 백제로 보기도 하나(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384쪽.), 문맥 상 신라를 주체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田溶新, 『完譯 日本書紀』, 一志社, 1989, 342~344쪽; 張彰恩, 「6세기 중반 한강유역 쟁탈전과 管山城 戰鬪」, 『震檀學報』111, 2011, 35쪽. 아울러 신라의 승전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아(張彰恩, 앞의 글, 2011, 31~37쪽), 양국의 후유증은 상당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7) 삼국시대 전쟁규모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나, 김수태는 7세기 신라의 백제 병력에 대한 기술이 1만과 대병이 따로 언급되므로, '적어도 1만명 이상'을 대병으로 보았다.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2010, 『百濟文化』42, 66쪽.

8) 金周成, 「百濟 武王의 大耶城 進出 企圖」, 『百濟研究』49, 2009, 45~48쪽; 金昌錫,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百濟·新羅의 전쟁과 大耶城」, 『新羅文化』34, 2009, 84~85쪽.

9) 서영일은 아막성 전투를 계기로 양국의 전선이 '육천-보은'에서 '운봉-함양'으로 변화한다고 지적하였다. 서영일, 앞의 글, 2012, 1쪽; 朴鐘旭, 「7세기 초 新羅와 百濟의 阿莫城 戰鬪」,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5쪽.

10) 愈元載, 「百濟 武王의 益山經營」, 『백제문화』25, 1996, 56~57쪽.

11) 金周成, 『百濟 泗批時代 政治史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10쪽; 金周成, 「백제 무왕의 사찰건립과 왕권강화」, 『韓國古代史研究』6, 1993, 275쪽; 김병남, 「백제 무왕대의 아막성 전투 과정과 그 결과」, 『전남사학』22, 2004.

12) 김수태, 앞의 글, 2010, 64~66쪽.

13) 金周成, 앞의 글, 2009, 45~48쪽; 金昌錫, 앞의 글, 2009, 84~85쪽.

분석하기도 하고,<sup>14)</sup> 신라·백제의 전쟁이 아닌 동아시아 세계대전 의 입장에서 아막성 전투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도 있다.<sup>15)</sup> 최근에는 아막성 전투를 백제의 일방적 공격보다 신라의 소백산맥 以西 진출 시도와 관련해 살펴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아막성 전투 전반을 살핀 연구도 나와 있다.<sup>16)</sup> 그 외에 아막성일대의 지명을 백제·가야의 관계를 모색하며 문헌위주로 찾거나,<sup>17)</sup> 고고자료·교통로 중심으로 찾기도 하고,<sup>18)</sup> 남원·운봉에 산재한 관방유적을 설명하기도 하여<sup>19)</sup> 아막성 전투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연구들도 찾아진다.

이상의 성과를 검토하면, 아막성 전투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백제의 입장에서 설명되었고, 특히 무왕의 왕권이나 무왕 대의 정치세력, 무왕의 대신라 정책 목표나 국제관계 혹은 지명·관방체계 속에서 다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막성 전투는 몇 가지 점에서 분석의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 첫째, 전쟁은 공격자·방어자의 관계 속에 전개되며, 결과는 양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하나의 전투라도 쌍방의 입장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선행 연구는 공격자의 입장에 편향된 듯하다. 둘째, 전쟁은 여러 사건이 복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戰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원인·시기·규모·戰場·주체·결과·전략·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20)</sup>

이상의 관점에서 본고는 602년 아막성 전투의 전개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보고, 신라·백제에 있어 전투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 문안식, 앞의 책, 2006, 374~385쪽.

15) 徐榮教, 앞의 글, 2012a, 5~10쪽; 앞의 글, 2012b.

16) 朴鐘旭, 앞의 글, 2012.

17) 金泰植, 『百濟의 伽倻地域 關係史 : 交渉과 征服』, 『백제연구총서』5, 1997, 76~77쪽.

18) 곽장근, 『백제 간선교통로의 재편과 그 의미』, 『百濟文化』39, 2008;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百濟文化』43, 2010a; 『웅진기 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 연구』, 『百濟研究』44, 2010b.

19) 강원중,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 『湖南考古學報』27, 2007.

20) 許重權, 『한국고대 전쟁사 연구방법론』, 『軍史』42, 2001, 229쪽.

아막성과 주변 지형을 다각도로 분석해, 아막성의 군사적 가치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2장에서는 아막성과 주변지역의 군사적 가치를 상론하고, 3장에서는 단계별 전개과정과 아막성 전투가 신라·백제에 갖는 영향력을 논의하겠다.

## 2. 아막성과 주변지역의 군사적 가치

아막성의 위치는 남원~운봉 일대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sup>21)</sup> 이 지역에는 삼국시대의 산성지만 21곳이 있다.<sup>22)</sup> 이들 중 아막성의 후보로 주목되는 곳은 북성이재 근처의 城里山城과<sup>23)</sup> 팔랑치 근처의 城山里山城이다.<sup>24)</sup> 최근에는 '①규모·②입지·③신라의 세력판도·④두 산성의 기능차이'를 통해 성리산성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sup>25)</sup> 본고도 아막성을 성리산성으로 보겠다.

21) 김병남, 앞의 글, 2004, 103쪽; 문안식, 앞의 책, 2006, 379쪽; 강원중, 앞의 글, 2007, 54쪽.

22) 강원중, 위의 글, 2007, 48쪽, 51쪽.

23) 김병남, 앞의 글, 2004, 103쪽; 문안식, 앞의 책, 2006, 379쪽; 강원중, 위의 글, 2007, 51쪽; 광장근, 앞의 글, 2010a, 51쪽; 광장근, 앞의 글, 2010b, 111쪽; 朴鐘旭, 앞의 글, 2012, 21쪽.

24) 金泰植,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115쪽. 李永澤·田溶新 篇, 『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3, 70쪽; 盧重國 外, 『譯註 三國史記』Ⅲ,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148쪽. 한편 이영택, 노중국은 이백면~주천면 일대의 할미산성일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25) 아막성을 성리산성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포곡식 산성으로, 인근 산성 중 규모가 가장 크며(둘레 690m), 성 내부에 水源을 확보해 장기적인 농성전이 가능하다. 강원중, 앞의 글, 2007, 64쪽. ②치재·북성이재·북성이뒷재의 중간에 입지해, 운봉고원의 고갯길을 통제하는 역할이다. 광장근, 앞의 글, 2010a, 51쪽. ③고고·문헌자료 상 신라의 영향력이 서쪽으로 가장 멀리 미친 곳은 운봉고원·아영분지 일대였다. 광장근, 앞의 글, 2010b, 111쪽. ④성리산성은 치재·북성이재 등을, 성산리산성은 팔랑치를 통제하여, 각각 신라의 1·2차 방어선으로 설정된다. 문안식, 앞의 책, 2006, 379쪽. 반면 성산리산성으로 보는 견해는 音相似적인 근거가 많다. 이 점에서 성리산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막성은 600~651년 사이에 2회의 전투가 일어났다. 하나는 602년의 아막성 전투이고, 나머지는 616년의 母山城 전투로<sup>26)</sup> 모두 백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모산성은 아막성의 이칭으로,<sup>27)</sup> 두 전투는 14년 차이로 발생하였다. 600~651년 사이에 2회 이상 전투가 발생한 곳은 아막성과 가잠성임을 고려하면,<sup>28)</sup> 아막성은 양국의 주요 爭地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사료-가’를 통해 논의해보자.

사료-가.

天嶺郡. 본래 速舍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咸陽郡이다. 연혁이 둘이다. 雲峯縣은 본래 母山縣 【혹은 阿英城, 혹은 阿莫城이라고도 하였다.】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삼국사기』34, 「잡지」3, 지리 1, 강주 천령군.)<sup>29)</sup>

‘사료-가’는 天嶺郡 雲峯縣의 연혁이다. 천령군 운봉현은 경덕왕 16년(757) 개명된 것이고,<sup>30)</sup> 이전에는 速舍郡 母山縣으로 불렸다. 모산현의 이칭으로 아영성·아막성이 보이며, 『삼국사기』에는 阿莫山城·母山城,<sup>31)</sup> 阿暮城과<sup>32)</sup> 같은 이칭이 나타난다.

아막성은 운봉으로 개명된 후 현재까지 명칭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운봉은 신라시대 함양의 관할에서 고려 태조 23년(940) 경을 전후해 南原府에

26) 『三國史記』4, 新羅本紀4, 眞平王 38년(616) 冬十月; 『三國史記』27, 百濟本紀5, 武王 17년(616) 冬十月.

27) 서영교는 모산성의 유래를 아막성 전투과정에서 4개의 子城을 거느린 母城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였다. 서영교, 앞의 글, 2011b, 13쪽. 伐休尼師今 때에도 ‘모산성’이 나타남을 고려하면(『三國史記』2, 新羅本紀2, 伐休尼師今 5년(188) 春二月.) 타당한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견해를 참고하면, 아막성을 모산성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602년 8월 이후로 볼 수 있다.

28) 이 기간 동안 양국은 13회의 교전을 수행했고, 10회는 교전지역이 확인된다. 교전지역의 빈도는 가잠성 3회·아막성 2회이며, 그 외 지역은 각 1회로 나타난다.

29) 天嶺郡. 本, 速舍郡. 景德王改名. 今, 咸陽郡. 嶺縣, 二. 雲峯縣, 本, 母山縣 【或云, 阿英城, 或云, 阿莫城.】,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34, 雜志3, 地理1, 康州 天嶺郡.)

30) 『三國史記』9, 新羅本紀9, 景德王 16년(757) 冬十二月.

31) 『三國史記』27, 百濟本紀5, 武王 3년(602) 秋八月.

32) 『三國史記』45, 列傳5, 貴山.

편입되었고,<sup>33)</sup> 조선시대에도 南原都護府의 진관이였다.<sup>34)</sup> 1914년의 지방제도 개편 때 면이 되었고, 1995년 읍으로 승격해 남원시에 편입되었다.<sup>35)</sup> 즉 고려 이후의 운봉은 남원에서 관할하였다.

여기서 남원·운봉·함양의 관계는 주목된다. 운봉은 전통적 지리인식계에서 南江水系圈에 속해 함양과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sup>36)</sup> <그림-1>을 보자.

<그림-1> 『山經表』와 『大東輿地全圖』에 보이는 남원·운봉·함양



※ 기반지도 : ① 『山經表』(왼쪽) : 광장근, 2011, 「삼국시대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한국고대사학회 24회 합동토론회 발표자료집』 사진에서 발췌. ② 『大東輿地全圖』(오른쪽) : 스캔하여 편집.

33) 고려는 936년 후삼국통일을 완료하고, 940년에 州·府·郡·縣의 명칭을 개정했다. 『高麗史』2, 世家2, 太祖 23년(940), 春三月. 이 때 남원은 小京에서 府로 강등되었다. 운봉이 남원에 편입된 시점은 '至高麗'로 나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高麗史』57, 志11, 地理 2, 南原府. 선행 연구는 '至高麗'의 시점 판단을 유보하기도 하지만(황인규, 『高麗史』地理志 '高麗初' '高麗'의 時期 比定試考, 『東國歷史教育』3, 1991.) 대체로 940년을 하한으로 하는 어느 시점으로 파악하는 듯하다. 다음의 연구가 참고 된다. 李義權, 「高麗 郡縣制度和 地方統治政策」,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朴宗基, 「高麗 太祖 23年 郡縣改編에 관한 研究」, 『韓國史論』19, 1988; 崔貞煥, 「高麗 지방제도의 정비와 도제」, 『慶北史學』19, 1996; 윤경진, 「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 『역사와 현실』22, 1996; 具山祐, 『高麗前期鄉村支配體制研究』, 해안, 2003.

34) 『新增東國輿地勝覽』 39, 全羅道, 南原都護府.

35) 송호열, 『한국의 지명변천』, 成地文化社, 2006, 633~634쪽.

36) 김병남, 앞의 글, 2004; 강원중, 앞의 글, 2007; 광장근, 앞의 글, 2010.

〈그림-1〉은 『산경표』와 『대동여지전도』에서 남원·운봉·함양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전자는 水系를 잘 보여주며, 후자는 가장 정확한 전근대 지도로<sup>37)</sup> 전근대 교통로를 잘 보여주어 동시에 인용하였다. 〈그림-1〉처럼, 운봉은 수계(생활)·교통의 측면에서 함양을 비롯한 현재의 경남서부와 관련이 많다.<sup>38)</sup>

그러면 940년 전후로 남원에서 운봉을 관할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고려 이후 수도가 중부에 위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지의 사실이나 삼국의 지방통치체제는 군사조직과 밀접히 유착되어<sup>39)</sup>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sup>40)</sup> 상고기 신라의 도로·방어체계가 상관성이 높은 것도 이를 반증한다.<sup>41)</sup> 더하여 교통·군사의 연계는 唐이나 고려에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sup>42)</sup> 즉 국가가 중앙과 지방·지방과 지방의 네트워크를 구상할 때, 해당 시기의 군사문제를 고려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 신라와 고려 이후의 국가들이 고려한 군사문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고려 이후의 국가들은 수도가 중부지방에 위치해, 운봉과 수도방어는 관련이 별로 없다. 한편 운봉을 남원의 방위거점으로 편제하면, 적이 남원일대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즉 남원에서 운봉을 관할한 것은 ‘곡창지대로서의 전라도’를 방어하는 목적이었다.<sup>43)</sup>

반면 삼국신라는 백제와 대치했고, 백제로부터 도성을 방위해야 했다. 따라서 운봉은 백제공격을 방어하는 최전선으로 기능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천도는 없었으므로, 삼국시대 도성방어의 골격이 유지되어 함양에서 운봉을

37) 『대동여지전도』는 『大東輿地圖』의 축소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동여지도』보다 남북비율이 수정되어 한국 전근대 지도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졌다고 한다. 케리 레드야드 지음 / 장상훈 옮김, 『한국 고지도의 역사』, 소나무, 2011, 288~307쪽.

38) 김병남, 앞의 글, 2004, 104~105쪽; 곽장근, 앞의 글, 2010a, 31쪽.

39)李文基, 「大幢 및 停制의 成立과 展開」,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102~103쪽.

40) 주보돈, 「정치체제」, 『새로운 한국사길잡이』上, 지식산업사, 2008, 91쪽.

41) 서영일, 『신라육상교통로연구』, 학연문화사, 1999;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려 관계』, 신서원, 2008.

42) 당·고려에서 官道の 관리는 工部가 아닌 兵部의 소관이었다. 『唐六典』5, 尙書兵部, 職方郎中. 및 『高麗史』76, 百官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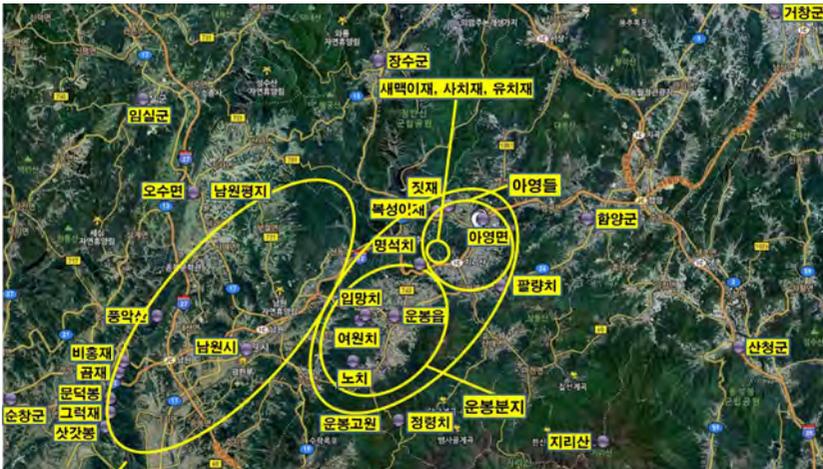
43) 강원중은 운봉이 남강유역이나 전북에 포함된 것은 고대부터 남원의 방위에 중요했다고 보았으나(강원중, 앞의 글, 2007, 47쪽), 이는 고려 이후 국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보인다.

관할했다고 보인다.<sup>44)</sup>

운봉의 상위행정구역 변화가 해당시기의 군사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면, 운봉의 군사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전근대 국가에서 운봉은 要害處로 인식된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高麗史』 지리지에는 운봉의 팔랑치를 요해처로 설명했고,<sup>45)</sup> 여말 왜구침입 때 이성계 휘하 장수들도 險地로 묘사하였다.<sup>46)</sup> 조선 정조대 상소에도 운봉을 關防으로 삼자는 건의가 보인다.<sup>47)</sup>

이처럼 전근대 국가에서 운봉이 요해처로 인식된 것은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다. <그림-2>를 보자.

<그림-2> 남원~운봉일대의 지형



※ 기반지도 : [www.naver.com](http://www.naver.com) 항공사진

※ 새백이재·사치재·유치재는 고개가 근방에 몰려 있어 '○'로 표기.

44) 이인재는 고려 전기 12목의 계수관 설치과정에서 州治·小京인 光州·南原 등이 완전히 배제된 이유를 팔랑치를 넘어 남원·광주를 통제하던 신라와 영산강·섬진강·낙동강을 통해 나주·승주·진주를 장악하려던 고려의 입장차이로 보았다. 李仁在, 「고려 초기 원주 지방의 역사와 문화」, 『韓國思想과 文化』32輯, 2006, 76~77쪽.

45) 『高麗史』57, 志11, 地理2, 南原府.

46) 『太祖實錄』1권, 辛禱 6년(1380) 庚申 8월.

47) 『국역 日省錄』, 正祖 2년(1778) 戊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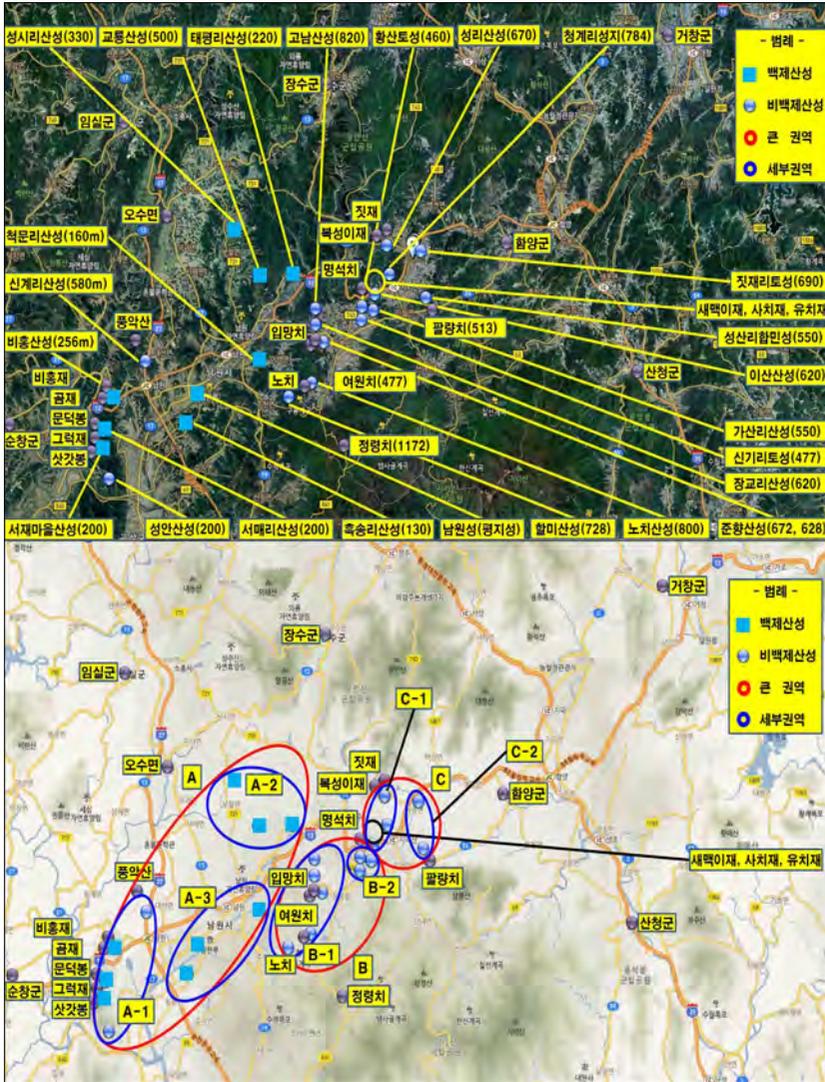
〈그림-2〉는 남원~운봉의 지형을 산세·자연환경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항공사진에 표현한 것이다. 현재의 남원시는 '입망치-여원치-노치' 선을 기준으로 동부의 운봉고원·서부의 남원평지로 나누어진다. 남원평지는 해발 200m 이하의 구릉지·저산성 산지가 대부분이고, 요천의 범람원도 해발 60~80m 정도이다. 운봉고원은 운봉분지와 아영들로 나누어지며, 해발 450m의 여원치에서 출발해 해발 400~500m에 이른다. 이 고도가 전북·경남의 도계인 해발 513m의 팔랑치까지 이어진다.<sup>48)</sup>

〈그림-2〉처럼, 운봉은 북쪽으로 임실·장수군에 남쪽으로 지리산에 접해 있다. 동쪽은 함양군을 통해 거창·산청에 연결되고, 서쪽은 남원시를 거쳐 순창군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남·동·서쪽에는 정령치(1172m)·팔랑치(513m)·여원치(450m) 같은 큰 고개와 그 외의 작은 고개들이 주변에 형성되었다. 즉 운봉은 전북↔경남을 연결하는 내륙교통의 중추이자 전형적인 분지로, 주변교통을 통제하기 용이하다.

이 점에서 운봉일대에는 남원평지·운봉분지·아영들과 각각의 권역에 형성된 능선을 따라 많은 관방시설이 축조되었다. 〈그림-3〉을 보자.

48) 강원중, 앞의 글, 2007, 45~47쪽.

〈그림-3〉 남원~운봉일대 관방시설



※ 기반지도 : [www.naver.com](http://www.naver.com)

- ① 위쪽 : 항공사진에 고개와 산성의 명칭을 같이 표기함.
- ② 아래쪽 : 도로지도에 권역을 표기함.

※ 숫자는 해발고도, 단위는 m임.

〈그림-3〉은 남원~운봉일대의 산성유적을 항공사진·도로지도에 표시하여<sup>49)</sup>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것이다. 항공사진에는 산성과 능선을 위주로 표기하고, 도로지도에는 각 산성들의 위치만 남겨둔 채, 권역만을 표기하여 흑백지면에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였다.<sup>50)</sup>

〈그림-3〉의 A는 남원평지, B는 운봉고원, C는 아영들이다. '■'는 '백제 산성'을 말하며, 대부분 A에 포진되었다.<sup>51)</sup> 그 외의 산성은 삼국의 유물이 혼재되어 출토되므로, '●'로 표기하고, '비백제산성'으로 표시하였다.<sup>52)</sup> A·B·C는 능선에 따라 세부권역을 나눌 수 있는데, 입지와 역할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세부권역의 입지와 역할추정

세부권역	행정구역 기준	능선·고개 기준	역 할 추 정
A-1	남원시 서남부	풍악산~삿갓봉	①순창↔남원 통제
A-2	남원시 북부	·	①남원북부 방어, ②B-1 대항
A-3	남원시 동남부	·	①남원남부 방어, ②B-1 대항
B-1	운봉읍 서쪽	입망치~노치	①남원↔운봉 통제, ②A 대항, 혹 ③A와 C의 완충
B-2	운봉읍 동쪽	명석치~유치재	①운봉↔아영 통제, ②A 대항, 혹 ③A와 C의 완충
C-1	아영면 북쪽	복성이재·짓재	①운봉↔아영 통제, ②A 대항
C-2	아영면 동쪽	팔랑치	①아영↔함양 교통 통제

49) 〈그림-3〉은 강원중의 관방체계 정리와(강원중, 앞의 글, 2007) 07.12.31에 편찬이 종료된 디지털 남원문화대전(<http://namwon.grandculture.net>)을 참고해 작성하였다. 이후 남원~운봉일대의 자연지형에 대한 여러 정보는 디지털 남원문화대전을 적극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50) 등고선이 나온 지도를 구하지 못하여 도로지도를 위주로 정리하였다. 양해를 구한다.

51) 강원중은 백제 산성 입지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①수륙교통의 편리함이 강조되고, 시계의 양호함에 우선순위를 둔다. ②주변 산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연계성을 가지는 線上에 위치한다. ③산성 주변 경계의 요충지에는 柵나 柵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강원중, 앞의 글, 2007, 49쪽

52) 이 지역에는 가야 유물·고분군도 많이 보인다. 광장근, 앞의 글, 2010a, 강원중, 앞의 글, 2007. 이에 대한 논의는 11년 한국고대사학회 24회 합동토론회에서도 진행되었다. 광장근, 「삼국시대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학회 24회 합동토론회 발표자료집』, 2011; 김태식, 「삼국시대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에 대한 토론포지」, 『한국고대사학회 24회 합동토론회 발표자료집』, 2011. 본고의 목적상 가야문제를 논의할 여유는 없으므로, 나머지를 비백제 산성으로 표시하였다.

〈표-1〉에서 주목할 것은 B-2와 C-1의 관계이다. 양자는 같은 능선에 축조되어, 사실상 연결되었고, 교통로 상 역할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1에는 아막성으로 추정되는 성리산성이 있다. 선행 연구도 B-2~C-1은 장성의 형태를 이루며, 고도·규모에서 성리산성을 장성의 중추로 파악한 바 있다.<sup>53)</sup>

이 점에서 아막성 일대의 군사적 가치를 생각해보자. B-1의 산성은 대체로 해발 700~800m에 입지하고, A와 상대적 고도차인 비고가 국지적으로 700m를 넘기도 한다. 반면 B-2의 산성은 대체로 해발 500m에 입지하여, B-1·B-2의 비고는 300m 정도이다. B와 C 역시 낮은 비고로 팔랑치까지 연결되어 있다. 즉, A에서 B-1으로 이동하려면 기복이 크고 험난하지만, B-1에서 팔랑치(C)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것이다.

이러한 지형은 아막성을 장성방어의 주성이자 백제방어의 최전선으로 설정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sup>54)</sup> 백제가 아막성을 장악하면, 팔랑치를 통해 무난히 함양을 공격할 수 있다. 반면 신라가 아막성을 장악하면 남원평지의 공격 또는 상황감지에 용이하다.<sup>55)</sup> 아울러 B~C에 발달한 고원은 기병 활용의 제한을 다소 완화시켜, 방어 전략의 선택폭도 넓다. 즉 신라는 아막성을 장악해 남원평지를 항상 견제하고, 나아가 백제의 군사력 일부를 이 지역에 긴박시키는 일종의 공세적 방어를 실현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전북↔경남 교통로에서 운봉이 갖는 위상이다. 운봉은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를 공격할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인데, 〈그림-4〉를 보자.

53) 강원중, 앞의 글, 2007, 54쪽.

54) 金昌錫, 앞의 글, 2009, 98쪽.

55) 이는 『孫子』에도 확인된다.(『孫子』, 「軍爭」) 이후 본고는 필요할 때 『孫子』를 활용하겠다. 삼국의 『손자』 전래는 불분명하나, 신라는 奈勿尼師今 이전에 전해졌다고 하며(李種學, 「新羅軍事思想의 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12, 1991, 48쪽.), 최근 김주성도 손자이론을 활용해 속함성 전투의 전개를 분석한 바 있다. 金周成, 앞의 글, 2009, 50쪽.

〈그림-4〉 웅진 혹은 사비에서 소백산맥 동쪽으로 가는 길



※ 기반지도 : 『大東輿地全圖』

〈그림-4〉는 웅진 혹은 사비에서 소백산맥 동쪽으로 이동하는 길을 『대동여지전도』에 표현한 것이다.<sup>56)</sup> 전근대의 도로체계가 고대의 교통과 더 부합할 것이므로, 『대동여지전도』를 활용하였다.

〈그림-4〉처럼, 백제가 소백산맥 동쪽으로 진출하려면, ‘장수→옥십령’이나 ‘운봉→팔랑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때 고민할 문제는 ‘옥십령과 팔랑치 중 어느 고개를 통과해야 공격에 유리한가?’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두 고개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옥십령은 해발 734m로, 『世宗實錄地理志』에 險阻處로 나온다.<sup>57)</sup> 실제 옥십령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60명이 모여야 고개를 넘을 수

56) 문안식, 앞의 책, 2006, 382~383쪽; 김병남, 앞의 글, 2007, 110쪽; 곽장근, 앞의 글, 2010a, 40쪽. 단 김병남은 남원 → 곡성 → 구례 → 하동으로 가는 길도 설명했지만, 경남을 길게 우회하여 표시하지 않았다.

57) 『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 晉州牧, 安陰縣.

있다.”<sup>58)</sup> 또는 “통과하려면 60여 굽이를 거친다.”라는 설이 있다.<sup>59)</sup> 즉 육십령은 매우 험준한 고개로, 대군의 기동·회군에 불리한 지형이다. 또 육십령 통과이후 함양을 빨리 장악하지 않으면, 운봉고원에서 남원평지를 공격할 시간을 주거나, 운봉·함양·거창 방면에서 협공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팔랑치는 해발 513m로 육십령보다 223m가 낮고, 운봉고원만 장악하면 비교적 평탄한 땅에서 행군할 수 있다. 또 팔랑치를 통과하면 함양에서 ‘산청→진주’ 혹은 ‘안의→거창→합천’으로의 진출로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다.<sup>60)</sup> 즉 백제는 통과 이후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신라는 병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통과 이후의 이점을 생각하면,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을 때 선택할 곳은 팔랑치일 가능성이 높고,<sup>61)</sup> 이 점에서 아막성의 군사적 가치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막성의 군사적 가치를 설명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막성이 위치한 운봉고원은 육로교통의 중추이면서, 방어 상의 요충지였다. 특히 남원평지와 운봉분지의 비고는 매우 컸고, 운봉분지와 아영들의 비고는 작았다. 아막성은 남원평지의 견제·공격에 유리한 위치였고, 완만한 주변지형으로 방어 전략의 선택폭이 넓은 위치에 입지하였다. 또 전북↔경남 간 교통로 상에서도 아막성이 위치한 운봉의 위상은 매우 높았다. 이에 신라는 아막성을 차지하여 백제에 공세적 방어를 실현하고, 예상 침공로를 사전 차단하고 있었다. 반면 백제는 대군의 기동과 통과 이후의 군사적 선택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아막성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더하여 아막성이 장성방어체계의 중추라는 점에서, 아막성을 장악하면 신라의 소백산맥 방어 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이처럼 높은 군사적 가치로 아막성은 양국의 爭地가 될 수밖에 없었다.

58) 『新增東國輿地勝覽』39, 全羅道, 長水縣.

5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육십령.

60) 김주성은 함양 장악의 의미를 ‘진주·합천으로의 진출로 장악’이라는 점에서 설명하였다. 김주성, 앞의 글, 2009, 44~45쪽.

61) 김병남과 문안식도 팔랑치를 선택했다고 보았다. 김병남, 앞의 글, 2004, 112쪽; 문안식, 앞의 책, 2006, 383쪽.

### 3. 단계별 전개과정과 아막성 전투의 영향

앞에서 아막성의 군사적 가치를 논의하였다. 이제 사료를 중심으로 아막성 전투의 전개를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양국에 있어 이 전투의 영향을 논의하겠다.

아막성 전투 기사는 『삼국사기』 외에는 보이지 않는데, 신라본기·백제본기·귀산열전에 분산되어 있다. 3개 사료의 편년은 동일하나, 사료의 주안점과 내용의 전개가 다소 다르다. 아마 전승과정이나 양국의 입장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유의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분석해보자. 우선 ‘사료-나’를 통해 신라본기의 기사를 보자.

사료-나.

24년. 가을 8월. 백제가 와서 아막성을 공격하니, [신라] 왕이 將士를 시켜 맞아 싸웠다. [백제를] 크게 대패시켰으나, 귀산과 추항이 죽었다.(『삼국사기』4, 신라본기4, 진평왕, 24년(602) 8월.)<sup>62)</sup>

‘사료-나’에 의하면, 아막성 전투는 백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하였고, 신라는 ‘將士’를 통해 逆戰하였다. 그 결과로 백제를 대패시켰으나, 귀산·추항이 죽었다고 하였다.

‘사료-나’는 아막성 전투의 원인, 전개, 결과를 간략히 서술하여 일종의 개요로 보인다.<sup>63)</sup> 그러나 나머지 자료를 검토하면, 戰場에 따라 ㉠아막성 포위전→㉡소타성 등 4성 전투→㉢천산 서쪽 대택 전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64)</sup> 사료의 행간을 읽자는 의미에서 각 단계별로 끊어

62) 二十四年. 秋八月. 百濟, 來攻, 阿莫城. 王, 使, 將士, 逆戰. 大敗之, 貴山·簞項, 死之. 『三國史記』4, 新羅本紀4, 眞平王, 二十四年 秋八月.

63) 박종욱도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朴鐘旭, 앞의 글, 2012, 31~32쪽.

64)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아막성 전투의 진행을 아막성 포위 → 보병·기병 4만을 동원한 백제의 신라 공격의 2단계로 보기도 하고(김병남, 앞의 글, 2004, 112쪽; 문안식, 앞의 책, 2006, 383~384쪽. : ③김수태, 앞의 글, 2010, 66쪽; 서영교, 앞의 글, 2012b, 12쪽;

읽도록 하자. 우선 '사료-다'를 통해 ㉠·㉡단계의 戰況을 살펴보자.

사료-다.

①3년. 가을 8월. 왕이 출병하여 신라의 아막산성【또는 모산성이라고도 하였다.】을 포위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精騎 數千'을 보내어 맞아 싸웠다. 우리 병사가 이로우를 잃고 돌아왔다. 신라가 小陁·畏石·泉山·甕岑의 4城을 쌓아, 우리 국경을 침입하여 꺾박하였다. 왕이 노해 佐平 解讐로 하여금 步騎 4만을 거느리고, 나아가 그 4城을 공격하게 하였다. 신라 將軍 乾品·武殷이 무리를 거느리고 拒戰하였다.(『삼국사기』27, 백제본기5, 무왕 3년(602) 8월.)<sup>65)</sup>

②진평왕 建福 19년(602), 壬戌年. 가을 8월. 백제가 크게 발병하여, 아막【莫은 暮라고도 하였다.】성을 포위하였다. 왕이 將軍 波珍干 乾品과 武梨屈·伊梨伐과 級干 武殷·比梨耶 등으로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맞이하게 하였다. 貴山·箒項도 아울러 少監으로써 나아갔다.(『삼국사기』45, 열전5, 귀산)<sup>66)</sup>

'사료-다'의 ①은 백제본기, ②는 귀산열전의 기사로서, ㉡단계 전까지의 내용만 인용한 것이다. ㉡단계는 조금 후에 검토하겠지만, 백제의 해수가 펼친 매복 작전에 신라군이 당황하자, 귀산·추향의 분전을 통해 대승을 거두는 내용이며 백제본기와 귀산열전 모두 수록되었다.

'사료-다'에서 주의할 것은 ①과 ②의 전황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①에는 ㉠단계와 ㉡단계가 모두 서술된 반면, ②에는 ㉠단계가 서술된 후 귀산·추향의 출전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 점에서 두 기사의 원전은 달랐다

박종욱, 앞의 글, 2012, 32쪽), 3단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주성, 앞의 글, 2009, 45쪽. 본고는 사료의 문맥을 고려하여 3단계로 보겠다.

65) 三年. 秋八月. 王, 出兵, 圍新羅, 阿莫山城【一名, 毋山城】. 羅王, 眞平, 遣, '精騎, 數千', 拒戰之. 我兵, 失利而還. 新羅, 築, 小陁·畏石·泉山·甕岑, 四城, 侵逼我疆境. 王, 怒, 令, 佐平, 解讐,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 將軍, 乾品·武殷, 帥衆拒戰. 『三國史記』27, 百濟本紀5, 武王 三年 秋八月.

66) 眞平王, 建福, 十九年, 壬戌. 秋八月. 百濟, 大發兵, 來圍阿莫【一作, 暮】城. 王, 使, 將軍·波珍干, 乾品·武梨屈·伊梨伐, 級干, 武殷·比梨耶, 等, 領兵拒之. 貴山·箒項, 并以少監赴焉. 『三國史記』45, 列傳5, 貴山.

고 생각된다. ②는 귀산열전의 내용이므로, 주인공인 귀산·추항의 활약을 설명하기 위해 신라의 4성 축성과 해수의 공격 사실은 생략되었다고 보인다. 두 사람이 실제 활약하는 것은 ㉔단계이기 때문이다. 반면 ①은 ‘羅王眞平’과 같은 표현 등으로 볼 때, 백제 측 자료로서 귀산 등의 활약보다 당시의 전황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보인다.<sup>67)</sup>

이제 ㉓·㉔단계의 전황을 분석해보자. 우선 ①·② 모두 ‘사료-나’처럼 아막성 전투를 백제의 선제공격으로 서술하였다. 한편 전황은 ‘사료-다’가 ‘사료-나’보다 구체적이다. ‘사료-나’는 ‘공격했다(來攻)’고 했으나, ‘사료-다’의 ①·② 모두 ‘포위했다(圍)’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가 아막성을 포위했음을 알 수 있다.

공격주체는 양국의 기록이 다소 상이하다. 신라 측 기록에는 ‘백제’로 표현된 반면, 백제 측 기록에는 ‘무왕’으로 표현되었다. 백제본기의 기록을 중시하면 전투는 무왕의 친정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인다.<sup>68)</sup> 따라서 전투의 유형은 백제의 입장에서는 親率形 전쟁이고, 신라의 입장에서는 敎遣形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sup>69)</sup> 아울러 아막성을 포위하여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졌으므로, 城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70)</sup>

전투의 시작이 ‘무왕의 친정’이라는 점에서 무왕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었을

67) 한편 박종욱은 아막성과 4성이 인접해 있어 운봉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두 기사 모두 귀산·추항의 활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전자료는 다르더라도 신라 측의 원전에서 전송된 것으로 보았다. 林鐘旭, 앞의 글, 2012, 27~31쪽.

68) 이문기는 무왕의 친정문제를 거론치 않고, 좌평 해수를 이 전투의 지휘관으로 보았다. 아마 본고의 ㉔단계를 위주로 생각한 듯하다. 李文基, 앞의 글, 1998, 289쪽. 김병남은 무왕의 친정을 부정하였는데, 무왕 초년의 왕권이 약하여 아막성 전투는 귀족들의 의지가 반영된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김병남, 앞의 글, 2004, 113쪽. 반면 김주성은 귀족들이 아막성 전투를 주도한 이유가 없고, 귀족들만의 주도로 전쟁이 가능한 것 인지를 지적하며 무왕의 친정을 인정하였다. 金周成, 앞의 글, 2009, 45쪽. 그 외 유원재도 무왕의 친정을 인정하고 있다. 愈元載, 앞의 글, 1996, 57쪽. 아직까지 아막성 전투를 주도한 귀족세력을 찾을 수 없고, 백제 측의 사료에 우선 순위를 두어 친정으로 보겠다.

69) 친솔·교건의 개념은 이문기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李文基, 『新羅 中古期 軍令體系의 檢討』, 『新羅文化』 9, 1992, 7쪽;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281~284쪽.

70) 城戰은 성의 탈취·방어를 위해 攻城·守城戰이 전개된 경우이며, 반대 개념을 野戰이라고 사용하겠다. 각 개념은 許重權, 앞의 글, 2001, 248쪽 참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관산성 친정의 패전 이후 첫 친정이었으며, 무왕 즉위 후 27개월 만의 공식적인 첫 사업이었다.<sup>71)</sup> 그러면 무왕이 아막성을 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투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①영토확장,<sup>72)</sup> ②운봉의 교통로 장악,<sup>73)</sup> ③옛 가야 지역 확보<sup>74)</sup>, ④왕권강화,<sup>75)</sup> ⑤대야성 진출을 통한 삼국항쟁의 주도권 확보,<sup>76)</sup> ⑥고구려·왜·백제 連和에 의한 倭의 신라정벌 의도,<sup>77)</sup> ⑦진평왕대 안정된 대내·외 상황을 활용한 신라의 소백산맥以西 진출 등이<sup>78)</sup> 지적되는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무왕의 대야성 진출의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신라의 대야성은 수도방어를 위한 최후의 거점이었고,<sup>79)</sup> 대야성의 진출은 옛 가야지역의 확보를 통해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막성은 교통로 상 대야성까지의 최단거리 중 최전선기지였다.

한편 전쟁 규모는 '사료-다'의 ①에 보이지 않으나, ②에는 大發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大發兵'은 '사료-다'의 ①에 보이듯, 적어도 보병과 기병을 합쳐 4만을 넘는 병력이 동원되었다고 생각한다. ㉔단계의 백제 병력은 ㉕단계에서 소모된 군사들이 제외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라는 백제의 대군을 '사료-나'의 '將士'로 대응했는데, '사료-다'에는 이들이 2가지로 나타난다. ①의 '精騎數千'과 ②의 5將軍(파진간 건풍·무리굴·

71) 서영교는 이 기간에 무왕이 前王의 3년 상을 마친 것으로 보았다. 서영교, 「무왕의 첫 출전」, 『국방일보』, 2011c, 2006, 08.

72) 許重權, 앞의 글, 1995, 104쪽.

73) 金昌錫, 앞의 글, 2009, 84쪽.

74) 김수태, 앞의 글, 2010, 68쪽; 서영교, 앞의 글, 2011b, 18쪽.

75) 金周成, 앞의 글, 2009, 45쪽.

76) 金周成, 위의 글, 2009; 金昌錫, 앞의 글, 2009.

77) 徐榮教, 앞의 글, 2011a; 앞의 글, 2012a; 앞의 글, 2012b, 11쪽. 다만 ③의 발표문에서 倭의 주도문제는 분명하지 않은 듯하는데(서영일, 앞의 글, 2012, 2쪽)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논문을 기다린다. 한편 백제·일본과 신라 정벌을 논의했다는 점을 간접 배경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金昌錫, 앞의 글, 2009, 85쪽.

78) 朴鐘旭, 앞의 글, 2012, 17쪽.

79) 金昌錫, 앞의 글, 2009, 98~110쪽; 金周成, 위의 글, 2009, 51쪽.

이리벌과 급간 무은·비리아)과 2少監(귀산·추향)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일단 신라의 將士는 5將軍·2少監이 지휘하였고, 병력의 질은 '精銳'였으며, 兵種은 기병임을 알 수 있다.

즉, '사료-다'를 자구대로만 검토하면, ㉠단계의 전쟁에서 백제의 보병·기병 4만 이상이 신라의 정예기병 1만 미만이 지키는 아막성을 포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사료-다'의 ①에서 무왕은 "이점을 잃어 회군했다.(失利而還)"고 하였다. '失利'는 '이득을 얻지 못하고'<sup>80)</sup> 혹 '전세의 이점을 잃어'<sup>81)</sup> 풀이하는 듯하다. 그러나 전투가 '대규모 친정'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失利'는 회군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병력의 열세에도 회군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將士는 신라군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수천은 적은 병력이 아니지만, 무왕은 적어도 보병·기병을 포함한 4만 이상을 동원하였다. 만약 將士가 신라군 전체라면 '4만 : 1만 미만'이 된다. 신라는 ①守成의 이점, ②병력의 질(정예), ③높은 지형의 측면에서 우위를 갖지만, 백제군의 공세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신라의 將士가 투입되자 백제는 회군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 아막성과 주변병력이 있고,<sup>82)</sup> 將士는 2가지 측면에서 중앙의 지원 병력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sup>83)</sup> 첫째, 신라 중고기 군제에서 장군은 부대 출동에 임박해 보임되었고,<sup>84)</sup> 귀산·추향이 600년까지 왕경에 있었으므로,

80) 盧重國 外, 『譯註三國史記』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480쪽.

81) 정운용, 「신라와의 관계」,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9, 충남백제문화연구원, 2007, 133쪽.

82) 신라의 1개 城에 주둔한 병력은 연구된 것이 없어, 아막성과 주변병력의 추산은 어렵다. 다만 사비시대 백제의 상비군이 시위군 2천 5백·중앙군 1만, 方城 1천 2백~7백명·그 외의 城兵이었다는 견해를 참고해(李文基, 『泗泚時代 百濟의 軍事組織과 그 運用』, 『百濟研究』28, 1998), 1개 城에 700명 정도 주둔했다고 볼 수 있다면 아막성 주변의 11성에 7700명 정도가 주둔하지 않았을까 한다. 아울러 최전선기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83) 김주성은 후원군으로(金周成, 앞의 글, 2009, 45쪽), 김창석·박종욱은 소타성 등 4성 병력과 왕경군단 일부로 보았다. 金昌錫, 앞의 글, 2009, 84쪽; 朴鍾旭, 앞의 글, 2012, 41~42쪽. 한편 精騎數千과 5장군·2소감의 부대를 별개로 보아, 2번의 증원군으로 본 견해도 있다. 서영교, 앞의 글, 2012a, 8쪽; 앞의 글, 2012b, 10쪽.

84)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176~185쪽.

이들의 첫 출진이 왕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sup>85)</sup> 둘째, 병종이 기병이라는 점이다. 고원에서의 기병활용은 가능하다. 신라는 기병의 역할이 적은 수성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전군을 기병으로 편성한 것은 행군 시간의 단축을 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sup>86)</sup>

그렇다면 백제가 회군을 결정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백제의 병력은 사비시대 백제 상비군의 % 이상이었으므로,<sup>87)</sup> 동원 가능한 대부분의 병력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백제가 추가로 병력을 동원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병력이 대야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면, 병력의 손실을 걱정해야만 했을 것이다.<sup>88)</sup> 공격자가 방어자보다 병력의 우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을<sup>89)</sup>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즉 ㉔단계의 백제는 대병을 통한 단기전을 노렸지만, 신라는 아막성과 일대의 병력으로 수성의 이점과 높은 지형이라는 우위를 통해 지구전·수성전을 하였다. 백제는 아막성을 포위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었으나, 신라의 지원군인 將士는 백제의 예상 외로 빨리 도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진평왕이 함안에서 전쟁을 지휘하였다는 견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85) 귀산·추향은 圓光에게 세속오계를 받았는데, 원광이 귀국한 해가 600년이다. 아막성 전투이전의 관직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전투가 첫 출전으로 보인다. 『三國史記』4, 『新羅本紀』4, 眞平王 22년. 및 『三國史記』45, 『列傳』5, 貴山.

86)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高仙芝의 토번정벌 사례가 참고된다. 파미르 고원으로 출정할 때 고선지군은 '보병·기병 1만'이었지만, 보병은 私馬를 구입하였다. 『唐書』135, 列傳 60, 高仙芝. 즉 전군을 기병으로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배선은 이를 행군시간의 단축을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池培善, 『고구려인 고선지(1)』, 『東方學志』110, 2000, 243~246쪽.

87) 김주성은 '兵官佐平. 掌, 外兵, 有六萬, 方統十郡.'이라 한 『唐書』, 百濟傳을 토대로, 사비시대 백제의 상비군을 6만으로 추정하였다. 金周成, 앞의 글, 1993, 274~275쪽.

88) 속함성 전투(624)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인다. 신라는 속함성 구원을 위해 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을 동원했으나, 당시 지휘부는 병력소모를 걱정해 속함성을 구원하지 않았다. 『三國史記』47, 列傳7, 訥催.

89) 손자를 참고하면, 공격자는 방어자보다 상당한 병력의 우위를 가져야 한다. 손자는 아군이 적을 포위하려면 적보다 10배, 공격이 가능하려면 5배가 많아야 한다고 보았으며(故, 用兵之法, 十則圍之, 五則攻之, 倍則分之. 敵, 則能逃之.(『孫子』謀攻)), 조조는 이에 대해 병력의 질을 고려하여 주를 달았는데, 아군이 적군의 %이면 정공법을, %이면 적의 후퇴로에 매복하라고 하였다. 김원중, 앞의 책, 2011, 96~97쪽.

보인다.<sup>90)</sup>

그런데 백제는 회군하였지만, 신라는 만족하지 않고 小陁·畏石·泉山·甕岑의 4성을 쌓았다. 이로 인해 양국의 전쟁은 '사료-다'의 ①에 보이듯, ㉔단계로 진입하였다. 신라의 '4성 축성'을 무왕은 '侵逼我疆境'으로 여겨 분노하였고, 좌평 해수에게 보병·기병 4만으로 4성을 공격하게 했다. 신라는 ㉕단계의 지휘부로 대응하였다.

즉 ㉔단계는 신라의 '4성 축성'이 원인이 되어 후속전투가 발달한 단계이다. 백제가 공격자·신라가 방어자라는 점과 城戰이라는 유형, 신라의 지휘부 등은 동일하다. 그러나 3가지 측면에서 전황은 변화하였다. 첫째, 회군 이후의 재공격이었다. 둘째, 좌평 해수가 지휘권을 가진 교전형 전쟁이었다. 셋째, 전장이 소타성 등 4성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㉔단계를 정리해보자.

먼저 ㉔단계의 진입시점이 궁금해진다. ㉕단계에서 백제는 회군을 단행했다. 회군의 목적지는 보이지 않으나, ㉕단계가 친정이므로 목적지는 사비로 추측된다.<sup>91)</sup> 무왕은 사비로 회군 도중 혹은 종로 시점에서 신라의 '4성 축성'을 들었고, 해수에게 공격을 명했다. 즉 해수가 공격을 하는 시점이 ㉕→㉔로 진입하는 시점인데, 회군 종료 후가 더 타당할 것 같다. '사료-다'의

90) 서영교는 ㉕단계 이후 진평왕이 '阿那'에서 귀산·추항을 맞이했던 점에서 진평왕이 阿那 근처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阿那는 함안이므로, 진평왕이 아막성 전투 당시 일본·백제 연합을 방어하기 위해 함안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徐榮教, 앞의 글, 2011b, 18~20쪽; 徐榮教, 앞의 글, 2012b, 3~7쪽. 일본의 신라정벌계획이 인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이라 여겨진다.

91) 서영교는 회군의 목적지를 남원으로 철수했다고 보았다. 서영교, 앞의 글, 2011c. 이는 백제군의 집결지를 남원으로 보았다는 점(서영교, 앞의 글, 2011c; 서영교, 앞의 글, 2012b)과 이 전투가 8월 안에 끝나야 한다는 시간문제를 염두에 둔 듯하다. 집결지를 남원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만 하지만, 무왕의 출발 자체는 사비(부여)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더욱이 서영교의 설명에 따르면 백제가 병력을 동원하는 27개월은 喪中인데, 무왕이 남원에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아울러 사료의 기년은 아막성 전투가 8월에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사료의 踰昂스는 8월에 끝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단정적으로 8월에 끝났다는 설명은 사료에서 찾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모든 전투가 8월에 종료되었다는 견해를 따르면, 4성이 축성되는 시간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 후술하겠지만, 축성지역은 아막성 서쪽으로 보이는데, 대규모의 백제군이 남원에 주둔하면서 신라의 축성이 성공하도록 놓아두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점에서 바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①에서 ‘進攻其四城’이라 했고, ㉔단계의 해수가 병력의 우위에도 불리했던 점에서 방어시설인 4성 축성이 완료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백제의 회군로를 생각해 보자. <그림-4>에서 ‘사비→아막성’의 최단 거리는 ‘논산→익산→전주→임실→남원’을 경유하며, 회군은 그 역이 될 것이다.<sup>92)</sup> 이 길은 전근대 도보교통에서는 299리, 오늘날에는 134.87km로 나타난다.<sup>93)</sup>

한국 고대 군인의 1일 행군거리는 정확하지 않으나,<sup>94)</sup> 중국 춘추시대에는 1일 30리 행군을 ‘솨’로 표현했다.<sup>95)</sup> 이를 참고하면, 회군종료까지 편도 10일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開戰시점이 남부에서 8월에 시작되었고, 회군로는 백제 영역 내부이며, 전쟁의 실패로 사기가 저하되었고, 대군기동이라는 점은 행군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해수가 아막성에 도착하는데 10일이 더 필요하므로, ㉔단계는 적어도 20일 이후에야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신라의 4성 축성은 당연히 ㉔의 지휘부가 감독했을 것이다.<sup>96)</sup> 20일 동안 4성 축성이 완료되었다면, 신축보다는 기존 산성을 보수·개축했다고

92) 문안식은 무왕의 출병로를 여러 가지로 언급했으나, 확정은 하지 않았다. 문안식, 앞의 책, 2006, 382~383쪽. 그런데 출병로는 회군로와 달리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쟁의 승패는 적이 나의 기동을 모르게 하는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孫子』, 軍爭.

93) 『대동여지전도』 기준으로 부여↔운봉의 거리는 299리이다. 오늘날도 부여↔운봉 간 최단 거리는 동일 경유지를 지난다.

94) 정영호는 김유신의 백제 공격루트를 분석하여, 김유신 부대가 1일 40~50리를 행군했다고 보았다. 鄭永鎬, 『金庾信의 百濟攻擊路 研究』, 『史學志』6, 1972, 61쪽. 그러나 출병일자·행군시간을 정확히 맞춘 것은 아니라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95) 『左傳』에는 군사가 1일 머무는 것을 솨, 2일 머무는 것을 信, 그 이상을 次로 표기했는데 凡師, 一宿爲舍, 再宿爲信, 過信爲次. 『左傳』, 莊公 三年 冬. 杜預는 1舍=30리로 풀이하였다. ‘微楚之惠不及此, 退三舍辟之.’ 【杜預注: 一舍, 三十里.】 『左傳』, 僖公 二十八年. 한편 최근의 『손자』 해설에 의하면, 춘추시대의 일반 행군거리는 1일 30리가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김원중, 『손자병법』, 글항아리, 2011, 187~188쪽. 한편 김주성은 1일 30리의 행군속도가 지휘체계가 유지대면서 대형을 갖추고 치중부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을 때의 속도라고 하였다. 김주성, 『7세기 삼국 고대 전투모습의 재현』, 『軍史』81, 2011, 70쪽.

96) 유사한 사례로 속함성 전문가 있다. 신라군은 백제군을 보고 속함성을 구원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奴珍城 등 6성을 쌓았다. 『三國史記』47, 列傳7, 訥催.

보인다.<sup>97)</sup> 그러면 戰場인 4성은 어디일까? 4성은 『삼국사기』에서 ‘사료-다’의 ①에만 보이고, 지리지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보여 문헌자료로는 위치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림-3>의 산성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4성의 위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①泉山과 鼎山の 음이 유사하여, 현재의 황산으로 보거나,<sup>98)</sup> ②산청군 지리산 일대~진안군 일대 혹은 천산성은 장수군 일대, 웅감성은 금산군 일대로 보기도 한다.<sup>99)</sup> 또 천산성을 짓재토성에 비정하기도 하고,<sup>100)</sup> 운봉읍·아영면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에 축조되었다는 견해도 있다.<sup>101)</sup>

이 중 ④의 견해는 주목된다. 무왕은 ‘4성 축성’을 ‘侵逼我疆境’으로 받아들였고,<sup>102)</sup> 이후의 전장도 4성 일대로 옮겨졌다. 이로 보아 4성은 아막성의 서쪽에 있었을 것이고, 주 용도는 아막성의 보조에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림-3>의 B-2(이산산성(620m)·가산리산성(550m)·신기리토성(477m)·황산토성(460m))~C-1(청계리성지(784m)) 일대의 성들로 추측된다.<sup>103)</sup>

따라서 백제는 ‘4성 축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4성을 방치하면, 아막성 중심의 방어체계가 강화되며, 신라의 운봉고원 장악력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4성 전투는 시작부터 백제가 불리하였다.

97) 김주성도 기존 산성의 개축으로 보았다. 金周成, 앞의 글, 2009, 46쪽.

98) 全榮來, 『百濟南方地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사, 1985, 153쪽; 盧重國 外, 앞의 책Ⅳ, 1997, 390~391쪽.

99) 李永澤·田溶新 篇, 앞의 책, 1993, 139쪽, 193쪽, 191쪽, 257쪽

100) 김주성은 ㉔단계에서 ‘泉山大澤’이 보이므로, 천산성을 짓재토성에 비정했다. 근거로 현재의 성리산성 동쪽에 저수지가 있으므로, 백제 당시에는 습지일 확률이 높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성산리합민성도 4성의 하나로 추측했다. 金周成, 앞의 글, 2009, 47쪽. 그러나 자연저수지인지, 인공저수지인지를 알 수 없고, 정황 상 성리산성 서쪽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101) 문안식, 앞의 책, 2006, 383쪽; 朴鐘旭, 앞의 글, 2012, 36쪽.

102) 김주성은 ‘侵逼我疆境’을 신라가 4성을 쌓고, 백제를 자주 침공했다고 풀이하였다. 金周成, 앞의 글, 2009, 45쪽. 이 견해대로라면 ㉔단계와 ㉕단계 사이에는 ‘자주 침공할 시간’이 필요하고, 두 전투가 별개의 전투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그의 견해도 ㉔와 ㉕를 연속된 전투로 보고 있다. 따라서 ‘侵逼我疆境’은 신라의 공격보다 ‘4성 축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103) 박종욱도 운봉읍 서쪽 산줄기 성곽으로 보았지만, 입망치·여원치·노치 등을 통제하는 노치산성·읍지산성·장교리산성·가산리산성 등으로 보았다. 朴鐘旭, 앞의 글, 2012, 36쪽.

백제는 전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출정하였고, 해수가 4성을 공격하는 시점에 신라는 이미 수성전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백제는 4성 전투 단계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된다.<sup>104)</sup> 이러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수는 매복 작전을 준비하였고, 전투는 ㉔단계로 진입한다. '사료-라'를 보자.

사료-라.

①해수가 불리하여, 泉山 서쪽의 큰 못가에 군대를 물리고, 병사를 숨겨 신라군을 기다렸다. 무은이 승기를 타서 甲卒 1,000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大澤에 이르렀는데, 복병이 일어나 급히 쫓았다. 무은은 말에서 떨어지고, 사졸은 매우 놀라서 할 바를 알지 못했다. 무은의 아들 貴山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師(=圓光)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土는 적군을 당하여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어찌 감히 도망가 스승의 가르침을 떨어지게 하겠는가?” 하고, 말을 타고 아버지를 도우러 갔다. 곧 小將 箒項과 더불어 창을 휘두르며 힘써 싸우기를 죽음으로써 하니, 남은 병사들이 이를 보고 더욱 분투하였다. 우리 군사의 패배가 잇달았는데, 解讎가 겨우 면해 1마리 말로 귀환하였다.(『삼국사기』27, 백제본기5, 무왕 3년(602) 8월.)<sup>105)</sup>

②백제가 패하여 천산의 못까지 퇴각하였는데, 병사를 숨겨두고 신라군을 기다렸다. 우리 군이 진격했으나, 힘이 다하여 돌아왔다. 이 때 무은이 후군이 되어, 군의 끝에 서 있었는데, 복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갈고리로 말에서 끌어 내렸다. 귀산이 크게 말하기를 “내 일찍이 스승님의 말을 듣기로, “土가 軍을 맞이하여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감히 도망쳐 패하겠는가?” 하고는 적 수십 인을 쳐 죽였다. 자기의 말을 내어 아버지를 구출하고, 추항과 더불어 창을 휘두르며 힘써 싸웠다. 여러 군이 그것을 보고 분연히 적을

104) 서영교는 이 전투를 '城 주변 전투'로 보아 성을 등지고 적군과 대결한 것이라고 보아 신라군의 유리함을 강조하였다. 서영교, 앞의 글, 2012b, 13쪽.

105) 解讎不利, 引軍, 退於泉山, 西, 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 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子, 貴山, 大言曰, “吾嘗受教於師, 曰, “土, 當軍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教乎?” 以馬授父. 卽, 與小將, 箒項, 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讎僅免, 單馬以歸. 『三國史記』27, 百濟本紀5, 武王 三年 秋八月.

치니, 시체가 늘어진 것이 들판에 가득하고, 1필 말과 1채의 수레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귀산 등은 병기에 당한 상처가 몸을 덮어,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 왕과 더불어 군신이 阿那의 들판에서 맞이하여 시신을 앞에 두고 통곡하고, 예로써 殯葬한 후 貴山에게는 奈麻를, 箒項에게는 大舍를 추증하였다. (『삼국사기』45, 열전5, 귀산)<sup>106)</sup>

‘사료-라’의 ①은 백제본기, ②는 귀산열전의 기사이다. ‘사료-라’는 ㉔단계의 진입원인을 ①에는 해수의 不利로, ②에는 백제의 敗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㉔단계의 전황이 백제에 유리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해수는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자, 城戰을 포기하고 ①의 ‘泉山西大澤’ 혹은 ②‘泉山之澤’으로 표현되는 진펄로 유인하여 野戰에서 승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㉔단계는 ㉑·㉒단계와 달리 野戰에 속한다.

그런데 ‘사료-라’의 ①·②에 묘사된 전황은 다소 다르다. ①·② 모두 신라가 유리했고, 해수가 복병을 준비해 진펄로 유인한 것은 같다. 그러나 ①은 무은의 甲卒 1천이 대택에 진입했다고 하고, ②는 신라군이 회군할 때 무은이 후군에 있었다고 한다.

②가 귀산열전이므로, ①의 전황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①에 의하면, 무은은 甲卒 1천으로 본대에 앞서 추격했으므로, 복병을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반면 ②에 의하면 무은은 회군할 때 후군에 있었을 뿐이므로, 무은에게 책임은 없다. ②가 귀산열전의 기사이고, 무은이 귀산의 아버지라는 점, 이 전투 이후 무은이 진급했다는 점에서<sup>107)</sup> ①의 기사가 더 신빙성이 있다. 이를 고려해 전황을 정리해보자.

106) 百濟敗，退於泉山之澤，伏兵以待之。我軍進擊，力困引還。時，武殷爲殿，立於軍尾，伏猝出，鉤而下之。貴山，大言曰，“吾嘗聞之師曰“士當軍無退”，豈敢奔北乎。”擊殺賊數十人，以己馬出父，與箒項揮戈力鬪。諸軍見之奮擊，橫尸滿野，匹馬隻輪，無反者。貴山等，金瘡滿身，半路而卒。王與群臣，迎於阿那之野，臨尸痛哭，以禮殯葬，追賜位貴山奈麻，箒項大舍。『三國史記』45, 列傳5, 貴山.

107) 당시 무은은 급간이나, 귀산의 출자를 설명할 때 阿干으로 나온다. 貴山, 沙梁部人也. 父, 武殷, 阿干. 『三國史記』45, 列傳5, 貴山. 이 전투 이후 무은의 행적은 보이지 않아, 위치럼 설명하였다.

해수가 진펄에 매복한 후 신라군을 유인하자, 무은은 甲卒 1천으로 백제군을 추격하였다. 여기의 1천은 '精騎 數千'의 일부로 보이며, 이후 신라의 본대가 진펄에 들어왔다.

진펄은 전투에 불리하며, 머물지 말아야 하는 지형의 하나이다.<sup>108)</sup> 특히 신라군은 기병이 중심이었으므로, 더욱 전투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추격도중 진펄에 진입하자 퇴각을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은은 선발대를 이끌었던 만큼, 퇴각 시점에서는 후군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퇴각을 결정하는 순간 해수의 복병이 신라군을 덮쳤고, 백제군은 중간 지휘관인 무은을 공격해 일시 승기를 잡았던 듯하다.

이후의 서술은 ①·②가 유사하다. 귀산이 아버지를 구하고자 적진으로 뛰어들자, 추향이 합세하였다. 그리고 두 명 少監은 군사를 독려해 승리로 신라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였다. ①의 '我軍敗績'이라는 말에서 이 외에도 몇 번의 전투가 더 있었을 것 같으나,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나이 어린 귀산·추향의 영웅적 모습만이 기록되었다.<sup>109)</sup> 백제는 "해수가 單馬로 생환하고, 시체가 들판을 덮었으며,<sup>110)</sup> 말 1필·수레 1채도 돌아가지 못한 대패"를 당하였다.

①은 여기서 종료되지만, ②는 유공자의 대우가 더 설명되었다. 두 少監에 대해 왕은 '阿那의 딸'에 마중 나와 통곡하고, 국가에서 예로 빈장하며, 관위를 추증하였다.

이상에서 602년 8월 무왕의 대규모 친정으로 시작된 아막성 전투를 ㉠아막성포위전→㉡소타성 등 4성 전투→㉢천산 서쪽 대택 전투로 나누어 전개

108) 絶斥澤, 惟, 亟去無留. 『孫子』, 行軍.

109) 나희라는 순국주의를 강조한 신라의 의도가 남은 자료가 전해졌다고 보았다. 나희라, 「7세기 전쟁의 확대와 신라인의 순국주의적 생사관」, 『한국고대사연구』53, 2009. 서영교도 극적인 내용 때문에 특별히 기록에 남았다고 보았다. 서영교, 앞의 글, 2012b, 13쪽.

110) 김주성은 '橫尸滿野'를 통해 신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은 '泉山大澤'이 아닌, 들판이라고 하였다. 김주성, 앞의 글, 2009, 46쪽. 그러나 '橫尸滿野'는 대승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 동의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고려사절요』의 귀주대첩 전과는 '僵尸蔽野'로 나타나고 있다. 『高麗史節要』3, 顯宗 元文大王, 己未, 十年 二月 己丑朔.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러면 이 전투가 신라·백제 양국 관계에서 가지는 영향은 무엇일까? 양자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해보자.

신라의 입장에서 아막성 전투의 영향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소백산맥 방어선이 강화·확장되었다는 것이다. ㉞단계인 아막성포위전을 극복한 신라는 아막성 서쪽에 4성을 축성하였다. 이로 인해 ㉞단계 이후에는 방어거점이 전진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막성을 중추로 한 방어체계가 강화·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운봉고원을 장악함으로써 공세적 방어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이다. 신라는 ㉞단계인 천산 서쪽 대택 전투에서 승리하여 운봉분지까지 장악하였다. 이 점에서 신라는 백제에 방어의 우위를 지니면서 백제 군사력의 일부를 남원에 긴박시키는 공세적 방어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1)</sup> 실제 백제는 신라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수행하였다. 무왕 연간 백제의 선제공격이 신라보다 많지만, 624년 속함성 등 6성을 함락할 때까지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sup>112)</sup>

한편 백제의 입장에서 아막성 전투의 영향은 무왕 초년의 대야성 진출의 도가 봉쇄되었다는 점이다. 백제는 관산성 전투 이후 축적된 국력을 토대로 백제사에 유래 없는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대패를 당했다. 실제 605년 신라의 보복성 공격을 허용하면서도 角山城 축성이라는 소극적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었고,<sup>113)</sup> 대규모 반격은 624년의 속함성 등 6성 전투에서야 가능하였다.<sup>114)</sup> 또 무왕이 對隋외교를 중시한<sup>115)</sup> 원인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111) 한편 이 전투의 원인을 신라의 소백산맥 以西 진출로 본 박종욱은 신라가 백제의 고훈군·거사물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라의 진출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다. 林鐘旭, 앞의 글, 2012, 49쪽.

112) 김수태, 앞의 글, 2010, 67쪽.

113) 許重權, 앞의 글, 1995, 75쪽.

114) 605~624년 사이에 백제는 신라의 가잠성을 함락시키고, 616년에는 모산성을 재공격하였다. 616년의 모산성 공격은 실패했고, 618년에는 신라의 역공으로 가잠성을 함락 당했다. 이 점에서 대규모 반격은 624년의 속함성 등 6성 전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영교 역시 624년의 전투를 대반격으로 지적하였다. 서영교, 앞의 글, 2012b, 1~2쪽.

115) 신형식, 「수·당과의 관계」, 앞의 책, 2007, 252쪽.

## 4. 결 론

본고는 아막성의 군사적 가치와 아막성 전투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아막성 전투가 신라·백제에 가진 영향을 요약하였다.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한계점을 지적해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아막성은 운봉고원의 성리산성을 말한다. 운봉고원은 전북↔경남 간 육로교통의 중추이면서, 방어의 요충지였다. 특히 남원평지와 운봉고원의 비고는 컸고, 운봉분지와 아영들의 비고는 작았다. 이 점에서 아막성은 남원평지의 견제·공격에 유리하였고, 방어 전략의 선택폭이 넓은 위치에 입지했다. 신라는 아막성을 차지해 백제에 대한 공세적 방어를 실현하고, 예상 침공로를 사전 차단하였다. 반면 백제는 대군기동과 통과 이후의 군사적 선택에 유리하다는 점, 장악 이후 신라의 소백산맥 방어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효과 등으로 아막성을 장악하려 들었다.

602년 8월에 시작된 전투는 ㉠아막성포위전→㉡소타성 등 4성 전투→㉢천산 서쪽 대택 전투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무왕은 대야성으로 진출하고자 적어도 보병·기병 4만을 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친정을 단행했지만, '精騎 數千'을 동원한 신라의 빠른 대응·전투력을 보존해야 하는 백제의 입장으로 인해 무왕은 회군을 단행하였다.

신라는 백제의 회군에 만족하지 않고, 아막성 서쪽에 '소타 등 4성'을 개축했다. 백제는 이를 방치할 수 없었고, 무왕은 해수에게 급히 보병·기병 4만을 주어 4성의 공격을 명령했다. 그러나 해수가 도착했을 때, '4성 개축'은 완료되어 있었다. 백제는 대병을 동원했지만, 소타성 등 4성 전투에서 피해를 입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었다.

해수는 城戰을 지양하고, 野戰에서 승부를 보려하였다. 이에 천산 서쪽 대택에 복병을 준비하고, 신라군을 유인하였다. 무은의 甲卒 1천을 필두로 신라는 백제군을 추격하여 大澤에 진입하였다. 진필은 싸우기에 불리하며, 기병 위주의 신라군이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소였다. 신라군이 퇴각

하려고 할 때, 해수의 복병이 공격을 시작했고, 백제는 일시적으로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신라군의 분전으로 백제는 몰살에 가까운 대패를 당했다.

아막성 전투는 이처럼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신라는 백제의 대병을 단계별로 소모시키면서 이 전투를 극복하였다. 전투의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이 전투는 신라·백제 양국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신라는 천산 서쪽 대택 전투의 승리로 소백산맥 방어선을 강화·확장하였고, 운봉고원을 온전히 장악해 공세적 방어를 실현하였다. 반면 백제는 관산성 전투 이후 50년 동안 축적된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고, 무왕 초년의 대야성 진출의도가 봉쇄되었다.

본고의 논의는 이상과 같은데, 많은 한계가 있다. 아막성 전투라는 작은 사례를 세밀히 묘사하기 위해 사료의 행간을 위주로 설명하면서, 정황·군사이론에 기대어 설명한 부분도 많았다. 또한 군사사적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진 정치·대외관계에 대해서도 소홀한 부분이 많다. 아울러 아막성 전투가 가능했던 사회·경제적 배경, 대병의 편성방식, 더 세밀한 격전지의 설정, 아막성 전투와 민의 동향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도 한계이다. 이는 가능하면 차후의 연구에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원고투고일 : 2012. 9. 28, 심사수정일 : 2012. 11. 21, 게재확정일 : 2012. 11. 30)

주제어 : 阿莫城, 아막성포위전, 소타성 등 4성 전투, 천산 서쪽 대택 전투, 신라의 공세적 방어

<ABSTRACT>

## The aspect and influence of the Battle in Amakseong

Huh, Jung-Gweon · Jung, Duk-gi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spect and influence of the battle at Amakseong(阿莫城, The Amak Fort, in present Seongrisanseong(城里山城)), which was near Unbong(雲峰), Namweon(南原) in August A.D. 602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ilitary strategy.

The Amakseong region was strategic and traffic point between Jeollabuk-do(全羅北道) and Gyeongsangnam-do(慶尙南道). Therefore Baekje(百濟) and Silla(新羅) valued highly of the region.

In August A.D. 602, King Mu(武王) of Baekje started a war to occupy this region. And he besieged the Amakseong. But the king withdrew his troops from the Amakseong because of the specific situation of Baekje and the reaction of Silla. After the withdrawal of Baekje troops, Silla was building four Forts including Sotaseong(小陁城). Baekje sent cavalry, but the forts were completed. Because of that, Baekje failed to control the area.

The battle in Amakseong suggests us some facts. From the point of Silla, the battle enabled it to expand its defense line at the Sobek mountains and Silla was able to conduct offensive defense against Baekj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Baekje, the purpose of the battle was to secure the shortest route to Taeyaseong(大耶城, The Taeya Fort) and to express the will of the King Mu. But a series of severe defeats weakened Baekje and Baekje's attempt to advance to Taeya Fort was frustrated.

Key Words : Amakseong(阿莫城 : The Amak Fort), The besiege of Amakseong, Four-fort battles containing Sotaseong(小陁城 : The Sota Fort), the battle which occurred to big-swamp at the west of the Tien mountain(泉山), Offensive defense